

## 축주교육을 통한 예방진료의 실천과 병원의 성장

### 유 형 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우리말이 기억됩니다.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이 힘’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개업수의사, 대학강사, 병원경영 consult 등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지식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물론 개업수의사로서의 성패를 결정하는 제일 큰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업수의사의 수입원은 진료를 통한 것이지만 이를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질환시 내원한 환축의 진료를 통한 수입이고 두번째는 예방진료(예방의학)를 통한 수입입니다.

예방의학의 실천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수의사의 권위향상과 수입증대 외에도 인위적인 진료업무량 조절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한가한 계절에 예방진료에 치중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진료량과 수입의 balance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방의학이라하면 예방주사접종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예방진료란 말 그대로 그 당시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과거의 경험과 연구에 근거하여 미리 취해지는 축주교육을 포함한 모든 진료행위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축주에게 더 많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간혹 종합병원에 단순 치료차 갔다가 큰병이 있음이 발견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병을

얻어가지고 왔다고 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예방의학이란 것을 소개하면서도 축주가 호소해온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축주와의 관계를 더욱 소원해지게 하기 싫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염려되기는 하지만, 축주가 불평을 하건 안하건 간에 수의사로서 좋은 방법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의사인 여러분이 예방의학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올바른 임상지식이 있다면 예방의학 실천에 더욱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설득시키는 것이 다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으나 수의사로서의 전문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대할 때 축주도 또한 예방의학의 중요성에 동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의사의 지식과 예방의학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축주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예방의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상가가 예방 의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병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며 축주 환축 모두가 고생을 덜한다는 입장을 수의사가 몸소 느끼는 것은 물론 축주에게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태도, 능력, 지식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의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축주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는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개업의로서 예방의학 실천을 위한 축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제 나름의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의 중요성에 대한 축주교육은 축주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효과적인 것임

\* Animal Medical Care Center Medical Director Veterinary Applied Lab. Director of Vet. Technologist

니다. 처음 병원에 찾아온 고객이 애완동물을 처음으로 기르게 된 경우라면 이러한 축주교육이 수월하겠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축주들 대부분은 다른 병원이나 사람에게 애완동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태여서 이미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에 대한 상식과 새로 찾아온 병원에서 알려준 것과 상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오해나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는 축주교육시에 되도록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축주교육은 항상 올바르게 객관적이며 수의사나 애견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 예방접종

예방접종이 예방의학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도 얘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방법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언

급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방주사 효과는 주사시의 영양상태, 나이, 투여경로 특히 횡수와 투여간격에 의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2번 정도로 기초예방주사를 마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견의 몸속에는 생후 약 6주까지 모체이행항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체이행항체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종합예방주사는 통상 생후 6주 이후에 시작하여 약 2주 내지 4주 간격으로 3~4차례 실시하며 특히 Parvo virus는 생후 16~18주에 보강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Parvo virus에 대한 면역항체생산능력이 생후 18주가 되어야만 완벽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Parvo virus가 (1970년대 후부터 1980년 초에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애견가들이 개를 사방에서 잃어가는데도 수의사들은 예방주사를 못 구해 안타까워만 했

| 최 초<br>접종일<br>(주) | 접종 예정일(주)      |                |                              |       |       |       |                 |                 |                 |       |    |                  |  |
|-------------------|----------------|----------------|------------------------------|-------|-------|-------|-----------------|-----------------|-----------------|-------|----|------------------|--|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6                 | Temp.<br>Parvo |                | DHPPL                        |       | DHPPL |       | DHPPL<br>Rabies |                 |                 |       |    | Booster<br>DHPPL |  |
| 7                 |                | Temp.<br>Parvo |                              | DHPPL |       | DHPPL |                 | DHPPL<br>Rabies |                 |       |    | Booster<br>DHPPL |  |
| 8                 |                |                | DHPPL                        |       | DHPPL |       | DHPPL<br>Rabies |                 |                 |       |    | Booster<br>DHPPL |  |
| 9                 |                |                |                              | DHPPL |       | DHPPL |                 | DHPPL<br>Rabies |                 |       |    | Booster<br>DHPPL |  |
| 10                |                |                |                              |       | DHPPL |       | DHPPL           |                 | DHPPL<br>Rabies |       |    | Booster<br>DHPPL |  |
| 11                |                |                |                              |       |       | DHPPL |                 | DHPPL<br>Rabies |                 |       |    | Booster<br>DHPPL |  |
| 12                |                |                |                              |       |       |       | DHPPL<br>Rabies |                 | DHPPL           |       |    | Booster<br>DHPPL |  |
| 13                |                |                |                              |       |       |       |                 | DHPPL<br>Rabies |                 | DHPPL |    |                  |  |
| 14 <sup>+</sup>   |                |                | 처음접종 2주후에 보강접종(Booster inj.) |       |       |       |                 |                 |                 |       |    |                  |  |

습니다. 이때 멍크의 Parvo-virus vaccine을 개에게 투여하기도한 수의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수의사, 애견육종가, 제약회사가 많은 것을 배웠고 Parvo vaccine은 Distemper vaccine과 함께 중요한 예방주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미가 분만시나 분만후 3주내에 죽은 자견의 경우는 어미로부터 받은 모체이행항체가 없거나 적은 관계로 생후 3주부터 2~3주마다 약 12주까지 예방주사를 실시합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만난 수의사와 애견가·번식가 중에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stress를 피하기 위해 8주~10주 이전에는 예방주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히 소형견일 경우에는 vaccine의 전량을 투여하기보다는 1/2용량만 투여하여 자견의 stress를 방지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나머지(1/2용량)를 1주일후에 반드시 투여하라는 것과 전체적인 예방주사 횟수는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주, 9주, 12주에 예방주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 개가 소형견이라서 1/2용량만 투여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1/2용량을 7주, 10주, 13주에 반드시 투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축주가 귀찮아 할 경우엔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축주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차후에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16주 내지 18주에 Parvo virus에 대한 보강접종을 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확표를 만들어 줌으로써 축주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축주가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스케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 영양관리와 Grooming

초기신체검사 당시 수의사나 직원이 해야할 일중 예방접종교육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영양관리, 목욕방법, 피부손질, 눈과 귀의 질병예방에 관한 상담입니다.

털이 빠지고 냄새가 나는 개들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영양소의 balance가 안맞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생후 12개월까지 급속히 자

라는 성장기에는 철분, 인, 칼슘, 아연, 필수 지방산 등이 필요함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15~18년간 성장을 하는 반면 개는 10~14개월에 성장이 완료된다는 것을 비교해가며 생후 1년간의 영양이 앞으로 10~15년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을 설명한다면 축주들도 생후 일년간의 영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pH가 적당하지 못한 샴푸나 자극이 강한 세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병은 물론 눈과 귀에 이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즉, 목욕시 이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가 눈을 비비고 각막이 상해를 받는 경우와 귀에 들어가서 외이염이나 중이염이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완전 전용샴푸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목욕 2~3분 전후에 각각 안약과 귀약을 넣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Poodle이나 Maltese 등 귀가 늘어진 품종은 1주일마다 최소 한번씩 귀지 세척제를 이용하여 귀를 간단하게(눈에 보이는 곳만, 절대로 면봉 사용금지) 닦아주는 것과 통풍을 시키는 것이 이염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교육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바른 기구나 경험이 없이 귀를 만지는 것은 고막파열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약물이 중이염을 유발한다는 점을 축주에게 강조하여 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귀병예방이 왜 중요한지는 귀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모형을 준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이도와 90℃ 각도를 이루는 수평이도와 수직이도를 설명하고 이러한 구조상의 이유로 외이염이 발생되기 쉽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약 20%의 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이염 내지는 중이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수의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축주에게 이러한 것을 교육하겠습니까?

피부청결과 피부건강을 강조하는 방법중 질이 좋은 샴푸와 피부 softner, 피부를 위한 영양제를 한곳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처방 또는 양질의 샴푸 등을 구비 판매함으로써 축주가 자주 병원에 오게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의사나 간호원과 동물에 대한 상담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준다는데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입

니다. 애완견에게 적합한 샴푸나 비타민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병원에서 비타민 정이나 샴푸를 판매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샴푸를 단지 장사 목적으로만 판매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은 유익한 면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Pet shop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비록 수익은 얼마 안되는 것일지라도, 애견을 돌보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병원에서 진열·판매함으로써 축주들에게 Pet shop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올바른 사용방법과 투여방법 등을 특별히 수의사가 권고(처방)해 줄 수 있다는 점과 축주들이 이러한 것들을 쓸때마다 수의사의 추천내용을 생각하며, 이러한 용품(?)을 구하기 위하여 병원에 오는 것이 의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애견의 건강을 돌보는데 필요한 개 전용 샴푸나 예방용 안약과 귀약을 집에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병원 label(전화번호필수)을 붙여줌으로써 전화상담 등 축주의 편리함을 도모해보십시오.

### 기생충 구제

기생충구제는 1년에 두번씩大便검사를 통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저 정기적으로 약만 파는 것은 약방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구충제라도 실제 임상에서는 모든 기생충을 한번에 깨끗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분변검사를 통해 기생충 감염을 확인한 뒤 적절한 치료제를 투여하고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것만이 기생충을 박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에서(직장을 통해 분변을 채취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고안된 분변채취기를 사용하여) 분변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깨끗한 채변봉투를 미리 준비하여 축주들이 불결한 기분없이 변을 가지고 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ape-, hook-, whip-, roundworm 모두가 15일 간격으로 두번이상 치료와 치료효과를 확인을 해야 성충과 자충을 모두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whipworm이나 tapeworm 경우엔 결과가 음성이라도 6개월후에 또다

시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의 광범의 구충제로 사용되는 fenbendazole, mebendazole, febantel-praziquantel, nitroscanate(lopatol) 등의 완벽한 구충효과를 위해서는 3일 연속 투여하도록 지시되고 있으며 Coccidia의 치료를 위한 항원충제를 7일 내지 15일 이상 계속 투여하는 동시에 vitamin B도 처방합니다.

이렇게 축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기생충감염과 구충제의 효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하여 준다면 공중보건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구강질환

입속은 금광이나 마찬가지로 수의사들간의 joke가 있을 정도로 입을 열어보면 치료를 요하는 상태 즉, 충치, 농양, 치주염, 뿐만아니라 편도선염 또는 연구개 하수중(elongated uvula)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시에는 입을 열어 구강검사와 상부호흡기 검사에 신경을 써야됨은 물론 이러한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축주교육에도 힘써야 합니다.

특히 2년령 이상의 성견중 85~95% 이상이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을 앓고 있다는 통계는 소동물임상에서 치과질환의 중요성을 암시해 줍니다. 또한 소형견종에서는 영구치가 나온 후에도 유치가 남아 있는 유치잔존증도 흔하게 발견되는 치과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과질환의 임상적 중요성을 교육받지 못한 대부분의 축주들에게 그들의 애견이 교정이나 스케일링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수의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강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불평하는 축주에게 애완견의 구강을 열어 치주염, 구내염 혹은 치석을 보여주면서 악취가 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 해야할 사항들(예; 칫솔질, 구강악취제거제 분무 또는 치석방지를 위한 껌 등의 사용, 정기적인 예방적 치석제거술(dental prophylaxis)을 권장한다면 아마도 상

당수가 수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치아질환 예방을 강조하며 이를 닦아주거나 치석제거제를 하루에 한번씩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물론, 잔존유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유치제거를 강조합니다. 구강질환은 구강자체 뿐 아니라 여러장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치침농양인 경우에는 상하악골에 골수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분비된 독소나 세균이 전신으로 순환하게 되어 신장, 심장 등에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합니다. 예방적 치석제거(dental prophylaxis)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십시오. 예방적 치석제거는 각 case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간격으로 실시합니다.

1. 건강한 치아와 치육(치육염 Gingivitis은 있으나 치근막염 Periodontitis은 없는 경우) : 1년에 한번

2. 초기의 치근막염(Grade I ~ III) : 6개월에 한번

3. 경증 또는 중증의 치근막염(Grade IV, V) : 3~4개월에 한번

치아때문에 고생을 해본 주인이라면 그 아픔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예약을 지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치석제거 등은 수의사가 덜 바쁜 계절로 예약을 받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대로 유리합니다).

### 품종 특이성 질환

품종에 따라 발생율이 높은 특이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축주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 현재상태를 혈액검사 또는 X-ray검사 등을 실시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이 많이 발생하는 푸들 등 소형견은 X-ray 또는 심전도(EKG) 검사가 필요하며 갑상선기능부전증이 많은 Doberman은 혈액검사를 통한 갑상선 검사가 필요합니다. German shepherd, Collie, Doberman,

Labrador Retriever, Pug 등은 Hip dysplasia가 다발하는데 약 8~12개월령에 Hip X-ray 검사를 실시하고 2년후에 다시 촬영하여 Hip dysplasia가 없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Hip dysplasia가 발견된 경우에는 진행을 막기위한 식이관리, 약물투여, 적당한 운동 등을 주지시키거나 더욱 악화되기 전에 수술(대퇴골두절제술)을 권장합니다.

Daschund의 경우에는 성견이 되었을 때 척추 X-ray 촬영을 하여 Disc나 Spondylosis의 여부를 알아보고 Pug, Boxer, Bull dog 등 단두종의 경우에는 Nare와 soft palate를 검사하여 이 부위의 해부학적 비정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으면 예방적 수술을 권고합니다.

### 적극적인 진료자세

축주들은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의사가 자신이 신체검사시 발견한 이상을 무시한 채로, 축주가 호소한 증상이나 이상만을 치료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의사인 자신이 발견한 이상이 조그만 종양이라고 가정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조그만 종양을 발견했을 때 '지금은 아무 지장이 없으니 자랄 때까지 두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본 경험이 수의사라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양이 폐나 간까지 전이되어 더이상 손을 써볼 수도 없는 비극이 없도록 하려면 좀더 적극적인 진료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즉, 수의사가 발견한 이상은 모두 축주에게 설명하고 치료를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료여부는 축주에게 맡기십시오.

### 맺는 말

축주나 환축에게 관심과 염려를 가진 수의사, 안일한 수의사, 지식을 남용하여 축주를 놀라게 하는 수의사, 이 세가지 유형의 수의사중 정말로 어떤 수의사가 바람직한 수의사인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개업수의사들과 접촉한 경험으로서는 성공한 수의사나 병원의 특징적인 공통점

증에 하나는 축주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내적 PR을 백분활용하고 예방의학의 실천을 통한 임상수의사로서의 질적향상에 힘써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의사의 사명은 질병을 진단하고 축주의 요구대로 치료를 해주는 단순 의료행위 뿐아니라 더 나가서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축주에게 제시하고 질병에 대한 교육과 예방에도 힘쓰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료와 예방의학이 병행될 때 완전한 개업수의사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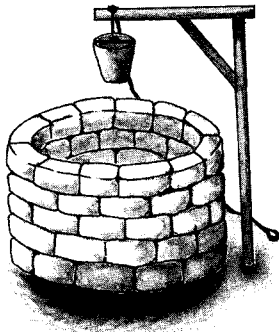
-요 약-

개업수의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의학

1. 효과적인 예방주사접종과 정확한 주사간격 (예방주사접종일이 되면 축주에게 전화나 엽서로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2. 영양교육과 grooming 상담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과 관계되는 처방약품 또는 양질의 용품판매
3. 비상/상비약품 필요성 인식과 판매, 건강유지를 위한 영양제의 지속적인 필요성 강조로 축주의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개선
4. 1년에 2회, 분변검사를 통한 정기적인 기생충 구제와 일단 감염시 2회 치료와 효과확인
5. 구강검사를 통한 제질병의 발견과 치아검사의 필요성 강조 및 치아건강 관련제품 사용권장
6. 각 품종별 특이한 질병의 설명과 예방을 한 검사(X-ray, 병리검사)의 추천과 결과에 따라 진행방지 방법이나 수술/치료 권유
7. 적극적인 진료자세-예)종양의 보다 세밀한 검사와 치료로 전이에방

“Veterinarian Oath”



“철학이 있는 수의사”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에  
사막이 아름답다고,  
가슴 밑바닥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듣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건네듯 쓰러진 소에게  
서갈세를 주시하고 나는 생명의 고귀함과 함께  
내가 수의사임을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수의사의 권위와 품위를 존중하는  
주식 과학축산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 080-023-2361

